

201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⑤	5	④
6	③	7	①	8	⑤	9	②	10	①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①
16	⑤	17	②	18	③	19	①	20	③
21	④	22	⑤	23	③	24	②	25	③
26	①	27	②	28	③	29	④	30	②
31	⑤	32	⑤	33	②	34	⑤	35	③
36	②	37	③	38	④	39	②	40	④
41	①	42	④	43	⑤	44	⑤	45	①
46	①	47	③	48	④	49	①	50	⑤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노인에게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소?” 여행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정직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노인은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른 여행자가 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도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노인은 이번에도 대답 대신 여행자가 전에 떠나온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여행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1. [출제의도] 이야기의 교훈을 파악한다.

이야기에서 노인은 여행자에게 마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질문을 받자, 오히려 그 여행자에게 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본 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한다. 이는 보는 눈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긍정적인 점이 보이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일러 주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대나무 천장’을 아십니까? ‘대나무 천장’은 미국 기업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인식의 장벽을 말합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경영자 자리를 아시아계가 차지한 비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시아계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 학생의 15~20%를 차지하는 점이나, 아이비리그 졸업생 대다수가 이른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점,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시아계가 미국 기업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는 기업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 대체로 과묵하고 겸손하며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업에서는 이런 성향의 직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미국의 기업에서는 이런 성향의 직원을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2.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강연 중간 부분에 아시아계가 미국 기업 내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업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오답풀이] ② ‘대나무 천장’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차별 의식을 의미한다. ③ 들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미국 기업에서는 순종하는 성향을 리더십 부족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3]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 사 : 어휴, 이 녀석. 공부하고 있으랬더니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니?

학 생 :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영어 단어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외우는데, 좀 따분해서 눈으로만 재미있는 동영상 보고 있어요. 단어 외울 때는 뭔가를 보거나 들으면서 해야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교 사 : 그렇다고 해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건 좋지 않아. 우리 두뇌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거든. 평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 스마트폰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동시에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학 생 : 네. 저는 우리 두뇌가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시네요?

교 사 : 우리 두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낮은 전화번호 하나 기억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지.

학 생 :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도, 이런 스마트 기기에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건,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 사 :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자료 정보만 많이 확보한 학생들이, 마치 그 자료의 정보들을 자기 지식으로 갖게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그렇게 착각하다 보니, 정보들을 두뇌 속에서 구조화한 지식으로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학습 능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

3.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

선생님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들이 여러 가지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두뇌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따라서 선생님의 말에 이어서 할 수 있는 학생의 말로 ‘(스마트 폰과 같은) 기계가 똑똑한 거지, (그것을 사용하는) 제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군요.’가 가장 적절하다.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들

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견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부터 입론해 주세요.

찬성(여학생) :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애완견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크기가 인간에 가까울수록 그 안정감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를 단지 크다는 이유로 같이 생활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남학생) :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키우는 대형 애완견으로 인해 법정 다툼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송을 한 주민은 평소 대형 애완견이 내는 소음과 신체적 위협 때문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견을 키우게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자 : 다음은 찬성 측 토론자부터 상대방의 입론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찬 성 : 반대 측 토론자의 주장은 극히 드문 사건을 확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대형 애완견으로 인한 피해는 극히 일부이고, 아파트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대형 애완견은 운순하고 잘 짓지도 않는 종입니다. 저도 그 사건 기사를 봤는데 소송을 한 주민이 본 애완견은 사람을 잘 따라서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으로도 활약하는 골든 리트리버라는 종이었습니다.

반 대 : 저도 대형 애완견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대형 애완견을 키워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행위에는 반대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화분을 가꾸는 것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자 : 이제 찬성 측 토론자부터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찬 성 : 최근에 대형 애완견이 유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단체의 조사 결과, 그 원인 중 하나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파트에서도 대형 애완견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 대 :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15킬로그램 이상의 애완견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견을 기른다면 이로 인한 법정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결국 아파트 주민의 화합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가 사용한 전략을 파악한다.

반대 측 토론자가 최종 발언을 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아파트 관리 규정’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② 대형 애완견과 관련된 법정 다툼을 사례로 들고 있다. ③ 신문 기사에 나오는 애완견의 종을 밝히고 있다. ④ 동물 단체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파악한다.

찬성 측 토론자는 입론에서 대형 애완견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반대 측 토론자도 반론을 할 때 대형 애완견이 키우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토론자는 애완건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공통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

6.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연상한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조언을 <보기>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㉓의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도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기>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다.

7.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맞게 표현한다.

3행의 ‘언제나 같 수 있으려나? 뛰놀던 어린 시절 그 동산’에서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도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행의 ‘기리기 북쪽으로 날아가는데’와 ‘내 발걸음 제자리에 머무네’에서 대비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나)-2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2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취업 여성도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해 자녀에게 미안해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취업 여성이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연장 근무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근로 시간을 줄일 것을 제안해야 한다. 그런데 ㉕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특별 보육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9.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한다.

㉑은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닐 뿐 아니라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폐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㉑을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기 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유어가 지닌 의미를 파악한다.

‘고치다’는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㉑은 적절하지 않다. ㉑의 ‘고치다’는 ‘남거나 현 물건을 고친다.’는 의미로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수선(修繕)’이다.

11. [출제의도] 고쳐 쓰기가 적절한지 파악한다.

‘철사’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에서 ‘가정해서 말하여’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철사’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다 하더라도’, ‘-다 할지라도’ 등과 같은 말과 호응된다. ㉑ ‘있다 하더라도’를 ‘있다면’으로 고치면 양보의 의미가 사라져 어색한 문장이 된다.

12.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㉔는 ‘느긋이’가 올바른 선택이다. ‘느긋이’는 <보기>의 규정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㉑ ‘고이’는 ‘비’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 접미사가 붙어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㉒ ‘겹겹이’는 첩어인 명사 뒤에 접미사가 붙어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㉓ ‘죽히’는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접미사가 붙어 부사의 끝 음절이 ‘히’로만 소리 나는 단어이다. ㉕ ‘각별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 접미사가 붙어 ‘-히’로 소리 나는 단어이다.

[13~18] (시가 복합) (가) 백석, ‘허준’ / (나) 서정주, ‘침향’ / (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13.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허준’의 훌륭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침향’을 만드는 ‘질마재 사람들’의 높은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허준’과 (나)의 ‘질마재 사람들’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 ‘당신’은 ‘허준’이다. 화자는 ‘허준’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물로 나타낸다면 긍정적 가치가 구현된 ‘허준’의 모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㉑은 ‘허준’의 모습도 아니며 그로 인해 긍정적 가치도 드러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㉑은 ‘허준’이 나들이를 온 공간으로 화자가 처한 공간이다. 이는 ‘시인’으로 표현된 화자가 이곳에서 ‘허준’을 대하고 있는 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반면 (다)의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며 ‘도원(桃源)에 가깝게 느낀 데서 ㉒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 및 그 효과를 파악한다.

㉑은 ‘-르 제는 -뿐’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화되는 시적 의미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또는 자연 친화적 정서라고 한다. 이 표현이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㉒에서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산골 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로 ‘침향’을 만드는 장소이다. 이 표현은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드는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정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침향’의 긍정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곳은 ‘질마재 사람들’의 삶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탈속의 공간’이라고 한 것은 ‘질마재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㉓ ‘그물을 주어 두라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화자가 고기잡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의 화자가 실제의 어부가 아니라 유향자적하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 준다. 그러니 화자는 어부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19~21] (언어) 김광해 외, ‘국어 지식 탐구’

19.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첫 단락에서는 은유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2단락부터 6단락까지는 은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은유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4단락의 내용을 보면 ‘근원 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곧 근원 영역인 ‘전투’는 구조화된 경험이고, 목표 영역인 ‘논쟁’은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21. [출제의도] 중심 제재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한다.

마지막 단락의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라는 내용을 통해 ‘은유란 낯선 대상을 익숙하게 바꿔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

[22~24] (시나리오) 윤삼육, ‘잔치’

22. [출제의도]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허 주부는 유진의 혼사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불

현듯 이를 해결할 방안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허 주부는 자신이 유진의 혼사 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큰돈을 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일부러 황 부자가 듣도록 한다. 이는 황 부자를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유진의 혼사 비용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허 주부가 꾸민 계략이다.

23. [출제의도] 효과적인 영화 제작 기법을 구상한다.

#52에서 허 주부는 자신의 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을 꾸미던 중으로, 처음에는 그동안 유진의 혼사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하던 윤 영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㉑에서 윤 영감이 허 주부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허 주부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㉒에서 허 주부와 윤 영감은 갈등하고 있지 않으므로 빠르고 강렬한 음악을 삽입할 이유도 없다.

[오답풀이] ㉑ ㉒에서 조 씨가 정성껏 치성을 올리는 대사는 거목이다. ㉑ 뒤에는 그에 응감했는지 거목이 흔들린다고 했다. 따라서 ㉑은 거목이 조 씨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장면 전환 방법을 파악한다.

#51의 ‘소리’는 조 씨의 대사가 아니라 허 주부의 대사이다. 대사 뒤에 바로 나오는 무릎을 치는 허 주부의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한다. #51의 ‘소리’는 새롭게 전개될 장면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25~27] (인문) 강준만, ‘국가 경쟁력, 한국적 사회 진화론 다시 보기’

25.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이 글은 1단락에서 사회 진화론의 형성 과정과 중심 개념을 소개하고, 2·3단락에서는 자본주의 및 우생학과 결합하여 수용된 양상을 소개하였으며, 4·5단락에서는 19세기 말 일본과 조선에 수용되는 양상을 드러내었으므로 ㉑이 중심 화제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확인한다.

3단락과 4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었다. 따라서 ㉑의 내용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한다.

<보기>는 국가 간 산업 경쟁에서 승패가 갈린 사례이다. 근대화된 방직 기계를 앞세운 일본이 ‘생존 경쟁’에서 전근대적인 생산 방식을 지닌 조선에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열등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진화론의 논리에 어긋나므로, ㉒의 진술은 적절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㉑ 2단락에서 스펜서는 인간 사회의 생활을 개인 간의 생존 경쟁으로 파악했고, 인위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패자인 조선의 수공업자들과 면화 재배 농민들의 몰락이 당연하며, 이들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㉓ 4단락을 보면 문명 개화론자들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여 서구식 근대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들이라면 일본이 근대화된 방직 기계를 사용해서 조선의 재래식 기계를 압도한 것은 근대화에 앞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㉔ 강자에 대한 패배를 불가피한 숙명으로 인식한 윤치호 같은 인물은 조선의 수공업자나 농민들의 몰락을 어쩔 수 없는 일로 해석했을 것이다.

[28~30] (과학) 정완호 외, ‘고등학교 과학’

28.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연히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

고 발견 당시에는 정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찾고 있었다는 언급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2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가)는 전자가 양성자에 붙들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결합 전'의 모습이고, (나)는 전자가 양성자에 붙들려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재결합 후'의 모습이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온도가 3,000K 아래로 내려간 (나)의 경우에는 (가)의 경우보다 전자의 움직임이 느리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세계 불면 입 안의 따뜻한 공기가 좁은 통로를 빨리 통과하여 입 밖으로 나오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어 온도가 낮아져 차갑게 된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는 모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 길이, 면적,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 현상에 의한 작용이다. ① 끓는 물을 차가운 컵에 넣으면 컵 안쪽의 부피가 바깥쪽의 부피보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 유리컵 안쪽과 바깥쪽 부피의 균형이 깨진다.

[31 ~ 34] (기술) 최성권, '신속조형기술'

31.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한다.

이 글은 3D 프린팅의 개념, 3D 프린팅을 위한 데이터 제작, 3D 프린팅의 재료와 방식, 3D 프린팅의 과정과 용도를 다루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핵심 원리를 이해하여 자료와 연결한다.

<보기>는 얇은 층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적층의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 중 적층의 원리를 표현한 것은 ㉡이다.

33. [출제의도] 핵심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는 3D 프린팅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의 ㉡는 준비 단계이므로 어떤 것을 만들지 정한 후에 모형 제작을 위한 컴퓨터와 3D 소프트웨어, 3D 프린터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단계에서는 폴리곤 메시 구조의 데이터를 제작한다. 폴리곤 메시 구조의 데이터를 만들 때, 동일한 대상을 같은 조건에서 만든다면 폴리곤 메시 다각형 한 개의 크기가 작을수록 많은 다각형이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에 더 많은 좌표값을 저장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양은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폴리곤 메시 데이터 작성 후 이를 3D 프린터에 전송하기 위한 얇은 층의 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만들 때는 3D 프린팅의 재료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에 밝혀져 있지 않다. 오히려 글에 따르면 형태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단계에서는 3D 프린터가 전송 받은 데이터에 따라 작동하여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수지를 한 층 한 층 분사한다. 이때 이를 자외선으로 건조하여 완성된 물체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34. [출제의도]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분사'는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의 뜻을 지녔다.

[35 ~ 38] (예술) 박갑영, '서양 미술사'

35. [출제의도] 각 단락의 내용과 기능을 파악한다.

(다)의 앞부분은 인상주의 그림은 붓질이 거칠고, 덜 그린 듯이 보이고, 색채 사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화폭에서 물감이 섞인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뒷부분은 쇠라가 '점묘법'을 통해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즉 (다)는 인상주의 그림에 내재된 한계와 이에 대해 쇠라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다)가 '쇠라의 그림과 비교하면서 인상주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은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라)를 보면, 쇠라는 개별적 사물의 특징보다는 보편적인 특징을 추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폭 속 인물들은 표정이 없으며 개성적인 신체 특징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쇠라의 그림을 감상할 때, 작품 속 인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표정과 신체적 특징에 주목하겠다고 한 ㉡는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내용을 적절하게 추리한다.

㉠은 화폭에 색을 칠하지 않고 점을 찍는 점묘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쇠라가 점묘법을 사용한 이유는 화폭에서 물감이 섞여 색채가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38.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는 20세기 미술이라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도 농경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9 ~ 42] (고전소설) 신광한, '하생기우전'

39.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추리한다.

하생과 여인은 무덤에서 나온 후에도 서로 부부의 인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덤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여인은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라고 말한 뒤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40.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여인은 하생과의 혼인이 어렵게 된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하생이 쓴 시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혼사 반대에 대해 ㉡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41.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파악한다.

[A]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를 그대로 따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부창부수(夫唱婦隨)'가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린다.

[오답풀이] ㉡ 이심전심(以心傳心)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언감생심(焉敢生心) :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음. ㉣ 전전공공(戰戰兢兢)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 천정배필(天定配匹) : 하늘에서 미리 정하여 준 배필.

42. [출제의도] 삽입시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B]는 혼사 장에에 부딪힌 하생의 처지와 심리를 드러내 주며, 여인이 부모를 찾아가 혼인 승낙을 받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43 ~ 46] (현대소설) 김성한, '귀환'

4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경석'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경석'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B]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혜란'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혜란'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각기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그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 ㉤가 정답이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한다.

㉡에서 '명룡'은 "사람은 모두 형제다."라는 '경석'의 말을 듣고 얼굴을 돌려 한쪽 팔을 이마에 얹고는 "거,

다 하는 소리지."라는 말로 시작해서 "난 가만 생각하다가 두 비감이 들 때가 있다."며 신세타령을 한다. 그러므로 '경석'의 말을 듣고 감동했다기보다는 '경석'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오답풀이] ㉡ '관료주의적'이라는 말은 '관료들이 하는 방식과 같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나 경향이 있는 것'을 뜻한다. '계원'은 '혜란'을 형식적으로 대하므로 '관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4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한다.

'피안'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명룡'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경석은 눈을 감고 '혜란'한테로 가는 길을 생각한다. 그런데 '혜란'한테로 가는 길은 없고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을 더듬어가다 보면 죽음의 세계인 아득한 피안에 '혜란'이 있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석'이 '혜란'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 ㉠이 정답이다.

46.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감상한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석'은 대학생들도 가지 않는 군대에 자원을 하며, '명룡'에게 "아까운 사람…….", "사람은 모두 형제다."라는 말을 하고 우월감에 젖어 있던 과거를 반성한다. 이로 볼 때 '경석'은 우월 의식이나 허위의식이 없는 인물이다. 부정적인 현실에 눈을 뜬 비판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석'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한다.

[47 ~ 50] (사회) 카이저 평, '넘버스, 숫자가 당신을 지배한다.'

47.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한다.

위 글은 약물 반응 검사와 대출 승인 과정의 사례 분석을 통해 채택의 오류와 기각의 오류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8. [출제의도]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약물 검사관 입장에서는 채택의 오류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이라든가 검사 기관의 신뢰도 상실 등의 대가가, 은행 입장에서는 기각의 오류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 대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따라서 약물 검사관 입장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채택의 오류를, 은행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각의 오류를 줄이려 할 것이다.

49. [출제의도] 세부 정보와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

은행 입장에서 A(채택)는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다. 그런데 ㉠에서 'A의 경우 대출해 주고'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50. [출제의도] 유사한 사례를 파악한다.

㉢은 양쪽 관계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시소 관계이다. '모집 정원을 채워 선발할 때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도 그와 같은 시소 관계에 있다. 가령 100명을 채워 선발할 때 남자가 50명이면, 여자도 50명이다. 그런데 남자를 70명으로 늘리면 여자는 30명으로 줄어들고, 남자를 30명으로 줄이면 여자는 70명으로 늘어나는 시소 관계를 가지게 된다.

[오답풀이] ㉠ 관계 없음 ㉡ 비례 관계 ㉢ 비례 관계 ㉣ 비례 관계